

# JAMES TURRELL: SKYSPACES

In the 1970s, the American artist James Turrell began a series of works that he describes generically as “skyspaces”. These are enclosed spaces – rooms or free-standing structures – open to the sky through rectangular or circular apertures in the roof. While they appear to be architectural in nature, these spaces exist solely to create the light effects and perceptual events that constitute Turrell’s art.

## 제임스 터렐의 하늘 공간

1970년대에 제임스 터렐은 그가 일반적으로 ‘하늘 공간’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작업을 시작했다. 방 또는 자유로이 서 있는 구조물들로 보이는 밀폐된 공간이며 지붕에 있는 직사각형 또는 원형의 구멍을 통하여 하늘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건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공간은 단지 조명의 효과와 터렐의 작품을 구성하는 인지적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존재한다.



Skyspace: Stonescape, Private Collection, Napa Valley, USA

하늘 공간 - 돌 공간, 개인 소장, 미국 나파 밸리

© 2007 JAMES TURRELL / PHOTO BY FLORIAN HOLZHERR



View from inside, skyspace with square aperture

사각형 천창이 있는 하늘 공간의 내부



© JAMES TURRELL / PHOTO BY FLORIAN HOLZHERR

By Denis G. Pelli

Professor of Psychology and Neural Science,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USA

I am a scientist. Each fall and spring, I take the dozen students in my Laboratory in Perception class to see Turrell’s skyspace installation at PS1 in New York. It’s our only field trip. We go to see Turrell’s piece because it’s the best way I know to teach observation. An empty room with a large sharp-edged hole in the ceiling. The perimeter of the room is lined with benches for sitting, and it has some interior lighting. That’s it. We arrive half an hour before sunset and stay for an hour, leaving only once it’s dark. I ask the students to bring a jacket, a wristwatch, and a notebook. And I ask them to write down anything they find remarkable in their notebooks, recording the time along with each observation. Sometimes, I announce the moment of equiluminance, when the brightness of the sky matches that of the ceiling. Afterwards, we go to a local restaurant and compare notes. The goal of this class is for the students to learn science actively. It is no good doing canned experiments, demonstrating what we already know. We must explore a topic that is not well understood, to formulate and answer new questions. As I teach my students, the first step in any scientific

exploration is to observe. This is seemingly the most passive step, yet I suspect it is the most creative. There’s more to science than just observing, yet I think that it is the quality of the observation that most distinguishes the important discoveries. Nearly all scientific papers include data, and the data are generally measurements of the world, i.e. observations. However, there is a broader sense of “observation” that goes beyond recording to evaluating. Curiosity drives one to pay attention to one’s world, and as one tries to make sense of it, causes one to linger on some particular feature that suddenly seems to stick

*As I teach my students,  
the first step in any scientific  
exploration is to observe.*

데니스 G. 펠리

뉴욕대학교 신경심리학 교수

나는 과학자다. 나는 매년 봄과 가을에 개설되는 인지수업 시간에 연구실에 있는 12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뉴욕의 PS1 갤러리에 있는 제임스 터렐의 ‘하늘 공간’ 설치물을 보러 간다.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야외수업이다. 터렐의 작품을 보러 가는 이유는 그것이 관찰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천장에 끝이 뾰족한 큰 구멍이 있는 텅 빈 방. 이 방의 주변에는 앉을 수 있도록 벤치가 줄지어 있고 실내조명도 있다. 그것 뿐이다. 우리는 해가 지기 30분 전에 도착해서 1시간 정도 머물다 어두워지면 떠난다. 나는 학생들에게 외투와 손목시계, 노트를 가지고 오도록 한다. 그리고 매번 관찰할 때마다 시간을 기록하고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적어두라고 지시한다. 때때로 나는 하늘의 밝음이 천장의 밝음과 일치하는 순간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 후에 우리는 그 지역의 식당으로 가서 노트에 기록한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본다.

이 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이 과학을 적극적으로 배우게 하는 것이다. 판에 박힌 실험을 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주제를 탐구해야 한다.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모든 과학적 탐구의 첫 단계는 세밀한 관찰이라고 말한다. 이 방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수동적이지만 가장 창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과학

은 그저 관찰만 하는 것 이상이지만, 중요한 과학적 발견에는 수준 높은 관찰이 있다고 생각한다. 거의 모든 과학 논문들은 데이터를 포함하는데 그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측정 즉, 관찰이다. 그러나 폭넓은 의미로, 단순한 기록을 넘어 평가에 이르기도 하는 ‘관찰’도 있다. 호기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어느 순간 이상하거나 매우 아름답거나 또는 이상하게도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기 전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심 영역에 대한 막연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학생들은 칠판에 적혀 있는 중요한 사실을 노트에 적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주제를 선택하기 위해 실제 상황 속에 무수히 널려 있는 사실들을 파헤쳐 나갈 만한 경험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주의자와 함께 숲 속을 산책한 경험을 있을 것이다. 나무 이름과 그 나무에 대한 내력을 알게 됨에 따라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숲 속의 수많은 나무들이 사실은 각각 단풍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등의 집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듯 관찰력이 극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수업시간에 일어나는 일들과는 다르다. 관찰의 본질을 극대화하기에 설명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자연주의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바로 있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다.



Skyspace: Boullée's Eye, Private Collection, Belgium

하늘 공간 - 볼레의 눈, 개인 소장, 벨기에

© 2006 JAMES TURRELL / PHOTO BY FLORIAN HOLZHER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모든 과학적 탐구의 첫 단계는 세밀한 관찰이라고 말한다.

out as odd, or beautiful, or strangely hard to explain. Before one has a specific question, one typically has a vague sense of an area of interest. The students are accustomed to copying important facts from blackboards into their notebooks. But most have no experience of wading through the masses of facts in any real situation to select those that deserve further attention. Many people have had the experience of taking a walk in the woods with a naturalist. As you learn the names and stories of the trees, you see more. An undifferentiated mass of trees – the forest – becomes a collection of individual maples, birches, and pines. However, this dramatic enhancement of one's power of observation isn't sufficiently different from a classroom to fully expose the nature of observation. There's too much explanation.

It may seem that we are just learning facts from the naturalist's narrative. Turrell's skyspace allows each viewer to experience the full glory of pure observation. You're there for an hour, and it's quiet and comfortable. You don't need to know anything in advance. Walking into the room and sitting down, you've already seen all his cards: an illuminated room with a large sharp-edged aperture to the sky. There's no trick. You just experience the piece, in the slowness of time. Your mind wanders. You notice something. The once-distant sky now seems near, in the same plane as the ceiling. The hole has become a glowing blue panel. I'm always surprised by the diversity of the students' observations, their dynamic perceptual interpretations of the room and sky – changes in color, reflectance, emission, sharpness, shape, distance, occlusion, motion, and, recently, sound. One hears the neighborhood cars, the hot dog vendor, and the passersby. Turrell's piece requires no explanation. It is ordinary enough that viewers feel competent to observe and try to understand. And yet it's provocative enough to produce many dramatic visual effects that greatly surprise most viewers. But the room is just a room. The viewer does all the work, observing it all and noting what's remarkable. Turrell stays out of it. There is no lecture.

터렐의 하늘 공간은 모든 관찰자들이 순수한 관찰이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준다. 거기에 한 시간 동안만 있으면 고요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미리 뭔가를 알아두어야 할 필요도 없다. 방으로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모든 카드를 이미 본 것이나 다름 없다. 하늘을 향해 나 있는 끝이 뾰족한 큰 구멍이 있는, 불이 켜진 방. 속임수는 없다. 그냥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작품을 경험하는 것이다. 마음이 이리 저리 흘러가고 무엇인가 느껴진다. 이전에는 멀리 있던 하늘이 지금은 천장과 같은 높이로 가까워 보이는 것이다. 그 구멍은 이글거리는 푸른 색 화판이 된다. 색깔, 그림자, 빛의 방식, 날카로움, 형태, 거리, 폐쇄성, 움직임 그리고 소리의 변화와 같이 방과 하늘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관찰과 역동적인 해석에 대해 나는 항상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주위의 자동차, 핫도그 정수,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다.

터렐의 작품에는 설명이 필요치 않다.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것이 어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극적인 시각효과를 가져올 만큼 충분히 자극적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 방은 그냥 방이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놀랄만한 일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오직 관찰자의 몫이다. 터렐은 간섭하지 않는다. 가르치려는 것도 없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미지뿐이다. 그것은 환상이며, 나는 그 모든 것에 마음을 열어 놓고 있다.

Reprinted from: Pelli, D. G. (2005). What is observation? James Turrell's skyspace at PS1. In A. M. Torres, James Turrell. Valencia, Spain: Institut Valencia d'Art Modern (IVAM). ISBN 8448239520.